

공산권의 언어정책 연구

——북한의 언어정책과 언어 현황——

이 현 복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

次

- | | |
|----------------|-------------------|
| I. 머릿말 | IV. 한국의 언어정책과 현황 |
| II. 북한의 언어정책 | V. 남북한의 언어이질화의 원인 |
| III. 북한 언어의 현황 | VI. 맷는말 |

I. 머릿말

오늘날 한반도에서 쓰이는 언어는 여러 면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런 상태에 있다. 우선 한국 안에서의 언어 자체가 질서와 통일을 외면하고 문란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으며, 분단된 남과 북의 언어 차이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서 우리 겨레의 말과 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공산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한 도구로서의 언어의 가치를 일찌기부터 깨달은 북한은 용의 주도한 언어정책을 펴나갔으며, 이는 바로 오늘날 남북의 언어 차이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에서는 옛부터 우리 나라의 표준말로 되어 있는 서울말을 제쳐놓고 평양말과 함경도 사투리가 뒤섞인 말을 이른바 「문화어」라 하여 이를 북한 뿐 아니라 전 한반도의 표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또한 그들 나름의 철자법을 만들고 사전을 편찬하며 남한의 한국인에게는 뜻과 형태가 생소한 낱말을 많이 만들어 내어 쓰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십여년전, 남북회담 당시에 남북대표가 만나서 회담하는 가운데, 남북의 언어차이가 심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음을 실감하였거니와, 만약에 남북의 언어가 이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먼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의 언어상태가 어찌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편 8·15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하고 일관성있는 언어정책

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서구 민주사회가 그렇듯이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의 규범적인 언어 정책은 없고, 단지 학술단체 주도의 언어 연구와, 학술 및 사회단체 주동의 국어운동이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한국대로 표준말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글자 생활의 혼란, 무질서한 외래어의 수용, 외래어 표기법의 혼란, 어법의 혼란 등, 여러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가적으로도 염려스러운 것은 각 지역 방언의 난립과 표준말, 표준발음의 지위 약화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총화를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이 지역방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말의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는 표준말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현재, 안팎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관련이 있는 종대한 언어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언젠가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을 앞두고 필연적으로 벌어질 남북의 언어대결에서 우리 한국의 언어 질서가 먼저 바로 잡아지지 않고는 이미 그들 나름대로 정돈되고 통일된 북한의 언어와 효율적인 싸움을 벌일 수가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남북의 언어통일작업에서 우리는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망속에서 우리와 대결상태에 있는 북한을 비롯한 소련, 중국, 동독 등의 공산주의 국가의 언어 정책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이들 언어의 현황은 어떠한가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의 언어가 나아갈 길을 가다듬는 데에 참고가 되고자 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언어정책을 기획, 수립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의 언어정책과 현황을 연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첫째로 공산권 언어자료수집의 어려움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공산권의 언어자료와 언어정책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어려움이 있고 소련과 중국 및 동독의 언어자료는 그 나름대로 수집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로 내용의 다양함과 광범함이다. 언어에 포함되는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

- 2) 맞춤법 문제
- 3) 문자에 관련된 문제
- 4) 어휘 정리에 관한 문제
- 5) 문법 정리에 관한 문제
- 6) 발음을 비롯한 음성학적 문제
- 7) 문체에 관한 문제
- 8) 외래어 표기 및 로마자 표기문제
- 9) 소수민족어의 문제

이와 같이 광범한 내용을, 그것도 공산권 여러 나라의 언어 문제를 동시에 연구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북한의 언어정책과 언어현황을 검토, 분석하고, 아울러 한국의 언어현황을 검토한 후, 남북한의 언어정책의 비교 및 언어 이질화 현상의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려 한다. 그리고 북한의 언어정책과 언어현황은 어느 공산국가의 언어문제보다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Ⅱ. 북한의 언어정책

1. 개 관

북한의 언어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김일성의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를 살펴보면 북한의 언어정책은 대남전략면에서 언어가 가지는 혁명적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있어 정치사상 교양 및 주민의 조직, 동원에 기여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 아래서 북한의 언어정책은 한반도의 분단 아래 “한자폐지—한글전용”과 소위 “말다듬기 운동”이라는 국어정화사업을 해 왔다.

그러면 이제 한자폐지를 중심으로 한 문자정책과 소위 “문화어”라고 지칭되고 표준어 정책, 또 어휘정화정책과 거기에 관련된 사전편찬에 관한 현황을 보면서 북한의 언어정책을 살펴 보기로 한다. 아울러서 정치도구로서의 언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문자정책

우선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첫째는 한자폐지—한글전용의 문제이고, 둘째는 맞춤법 문제이다.

(1) 한글전용 문제

북한은 1949년 9월 8일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와 함께 한자를 없애고 한글만을 쓰기 시작했고 한자교육을 별도로 시행했다. 이처럼 한글전용과 함께 나타난 부작용은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때 나타나는 의미의 혼돈이었다. 이는 한자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한글로만 표기된 낱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맞춤법 문제

한글전용과 함께 나타난 “말다듬기 운동”의 여파로, 북한의 맞춤법의 기본적 규범이 되는 “조선어 철자법”이 1954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것은 종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크게 수정한 것이며 1966년 7월에는 다시 “조선 말 규범집”을 공포했다. 이제 이들을 토대로 북한의 맞춤법정책을 살펴보자. “조선어 철자법”은 단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는 형태주의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라는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첫째, 그, 닌, ㅅ의 명칭을 “기윽”, “디귿”, “시읏”으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둘째, 한자어에 기원을 둔 음절로서 복모음은 〈계〉, 〈례〉, 〈혜〉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단모음으로 했다. 즉 〈세〉, 〈제〉, 〈체〉, 〈폐〉는 각기 〈세〉, 〈제〉, 〈체〉, 〈폐〉로 했다.

셋째, 한자어에 기원을 둔 것으로서 〈-이〉는 〈희〉와 〈의〉에만 허용했다.

넷째, 사이 ㅅ의 문제에 있어서, 형태소가 결합되어 복합어(합성어)를 만들 때는 〈〉의 부호를 쓴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부호를 안 쓰기로 했다. 예를 보자.

그믐’ 달→그믐달

기’ 발→기발

덧’ 이→덧이

대’ 가→대가(代價)

벼들’ 잎→벼들잎

손' 등→손등

다섯째, “먹읍니다”, “먹습니다”, “하였읍니다” 따위는 모두 “—습니다” 형으로 통일했다.

여섯째, 용언의 어미에 있어서 <—ㄹ>음 다음에 경음화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경음화로 표시하지 않고서 철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 —ㄹ까→—ㄹ가

—을씨다→—을시다

—ㄹ쑤록→—ㄹ수록

—ㄹ찌라도→—ㄹ지라도

일곱째, 용언의 어미활용에 있어서 <이, 애, 에, 외, 위, 의>인 경우에 있어서 <—어>, <—었>이 이어질 때에는 <하—>동사의 경우에서처럼 <—여>, <—였>으로 쓴다.

예) 개여, 개였다. (개다)

기여, 기였다. (기다)

희여, 희였다. (희다)

베여, 베였다. (베다)

되여, 되였다. (되다)

쥐여, 쥐였다. (쥐다)

즉 “ㅣ”모음의 순행동화현상을 표기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덟째, <하—>의 출입형태인 <ㅎ>을 표기 않기로 했다. 즉, <다정하다>의 출입형태인 <다정하다> 대신에 <다정타>로 표기한다. 그리고, 띄어쓰기에도 있어서도 의존요소는 모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 한 인호 동지→한인호동지

학습할 것→학습할것

일어 나다→일어나다

할 것 없이→할것없이

문자정책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해 둘 것은 글자의 개혁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이는 아마 金科奉의 풀어쓰기와 관련된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족분단과 과학문화의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표준어 정책

“문화어”란 김일성 자신이 서울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용어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소위 북한의 표준어를 가리킨다. 문화어의 특징은 정치적인 이유로 평양말에 상당수의 함경도 사투리가 섞여 있고, 된소리가 많아 공격적이고 거칠다. 따라서 북한은 “문화어”, 즉 평양말을 중심으로 해서, 1966년 6월 이래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학 연구소를 동원, 어휘를 선정해서 이것을 민족어로서 확정해 나가려 했다. 이는 남북한의 언어이질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즉, 필요 이상의 언어통제로 표준말을 사정해서 “문화어”로 쓰고 있음이 북한의 표준어 정책의 특징이다.

4. 어휘정화

한글전용을 실시한 후에 일어난 이른바 “말다듬기 운동”的 목적은 공산주의적인 교양에 연결시키는 동시에 국어의 문화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말다듬기 운동”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

① 가능한 한 우리의 고유어를 쓴다. 이 원칙에 의해 다듬어진 용어 중 체육용어의 예를 살펴보자.

예) 분간휴식→쉴시간

지상회전→팔집고돌기

시축→첫차기

호흡극한점→숨고비

득점방→문그물

도수체조→맨손체조

역전경기→역이어 달리기

다음으로 언어학 용어 중에서 다듬어진 예를 들어보자.

예) 비음→코소리

류음→흐름소리
 전음→펄림소리
 장음→긴소리
 후설음→혀뒤소리
 신어→새말
 략어→준말
 종서→내려쓰기
 한자어→한자말
 소음→취취소리
 순치음→입술이소리
 분절음→마디소리
 감탄부→느낌표
 방점→밑점
 자모글자→낱소리글자
 회화문자→그림글자
 음절→소리마디
 개음절→열린마디
 내파음→속터짐소리
 단음절→홀마디
 량순음→입술소리
 김동어→느낌말
 술어→풀이말
 펴규정어→매김받는말
 간접보어→건너보탬말
 종결술어→마침풀이말
 전설음→혀옆소리
 접속도→이음도
 단어→낱말
 주어→임자말
 삽입말→게음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용어 중에서 ‘다듬어진’ 말의 경우를 몇 가지 더 들

어보자.

예) 공포→헛총

니토→진흙

애용하다→즐겨쓰다

피혁공장→가죽이 김공장

피곡→곁곡식

홍수→큰물

분무기→뿌무개

두절되다→끊어지다, 막히다

접수구→받는데

초경→애벌같이

과급되다→미치다, 퍼져가다

집요하다→끈덕지다

완곡법→에두롬법

퇴적하다→무지다

담당→맡음

섭취하다→빨아들이다

묵묵히→말없이

모호하다→흐릿하다

② 일본어의 잔재도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운동화→헝겊구두

시아게→끌손질

③ 외래어나 한자를 ‘다듬은’ 예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폭넓게 행해졌다. 외래어를 한자어나 고유어로 고친 예는 다음과 같다.

예) 호크→똑딱단추

카텐→창문보

남방샤쓰→반소매

투피스→동강옷

원피스→외동옷

갸쟈스카트→잔주름치마
노크→순기척
발코니→내민대
쓰리빠→끌신
레코드→소리판
리봉→꽃댕기
볼펜→알축민년필
벨→전기종
프래카드→천구호
아이스케익→얼음과자
아이스크림→얼음풀
화물스켈→배짐눈금
다이야→운행표
라제타→방열기
파스타→연고
헬리콥터→직승비행기
콜세트→몸매띠
샤워실→물맞이칸
샤프→알연필
에피소드→결 얘기
유모아→우스개

다음으로 체육용어의 경우를 보자.

스파이크→순간타격
서브→던지기 뿔
롱페스→긴연락
체스트패스→가슴연락
스파이크→못신
라이트윙→오른쪽 공격수
라이트풀백→오른쪽 방어수
래프트인너→좌내 공격수

레프트윙→왼쪽공격수
 센터포드→중앙공격수
 센터링→중앙으로 꺾어 차기
 코너킥→모서리 킥
 썬클→태
 퀘드→안경기
 라프타임→구간시간
 홍코나칭코나→홍자리칭자리

④ 고유어를 풀이 할 때에는 어휘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반대 말, 비슷한 말, 합성어 구성이 어울리게 한다는 원칙을 세워 두고 있다. 즉 유추현상을 이용한 어휘정화의 한 예라고 보자.

예) 사진용어 중에서

근사→가까이 찍기
 원사→멀리 찍기
 대사→크게 찍기
 중사→보통 찍기

이상이 “말다듬기 운동”의 원칙과 거기서 다듬어진 말들을 예로 든 것이다. 이를 주관하는 말다듬기 전문용어 18개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학 용어분과위원회
2. 금속 용어분과위원회
3. 생물학 용어분과위원회
4. 농학 용어분과위원회
5. 자연과학 용어분과위원회
6. 건설수리 용어분과위원회
7. 전기체신 용어분과위원회
8. 기계 용어분과위원회
9. 경공업 용어분과위원회
10. 상품이름 용어분과위원회
11. 문학예술 용어분과위원회

12. 사회과학 용어분과위원회
13. 체육 용어분과위원회
14. 수산해양 용어분과위원회
15. 운수 용어분과위원회
16. 지질광업 용어분과위원회
17. 임학 용어분과위원회
18. 일반어 용어분과위원회

여기에서 연구토론된 내용은 매주 2—3회에 걸쳐 『로동신문』, 『민주조선』 이란 신문에 발표되어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모으게 하고 있다.

이제 각 분야별 용어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예를 보자

○ 의학용어의 예

- 렬창→째진상처
- 좌창→찌긴상처
- 차창→찔린상처
- 절창→베인상처
- 광선욕→해빛쪼이기
- 모세혈관→설피줄
- 대순환→큰피돌기
- 소순환→작은피돌기
- 체순환→몸피돌기
- 폐순환→폐피돌기
- 호흡→숨쉬기
- 순환장애→피잘안돌기
- 폐활량→폐숨량
- 견갑관절→어깨마디
- 주관절→팔꼽마디
- 청진→들어보기
- 촉진→만져보기
- 시진→살펴보기
- 타진→두드려보기

망진→바라보기

지한제→땀멎이 약

해열제→열내림 약

강장제→보약

○ 사과이름을 지명과 계절, 색깔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쳤다.

예) 국광→복청(지명)

홍옥→황주(지명)

축→송화(지명)

옥→구월(계절)

왜금→단풍(색깔)

○ 예술용어의 예

〈미술〉 명암→검밝기

농담→짙음새

습필→젖은붓질

근경→가까운 경치

원경→먼 경치

전경→앞 경치

중심선→무게선

〈음악〉 타현악기→치는 줄악기

발현악기→뜯는 줄악기

음정→소리 사이

선률→가락

휴지부→쉼표

〈문학〉 아이로니→비양

에피소드→결얘기

잔르→갈래

련시조→이음시조

단상→토막생각

○ 교육분야의 예

질문지법→씌우기법

쎄미나르→학습토론

표현독→멋내읽기

복습→되익힘

예습→미리익힘

육체교육→몸교육

지적교육→슬기교육

감상문→느낌글

독서→책읽기

○ 수학과 관련된 예

빈도수→갖음수

등호→같기표

(-3)→덜3(즉 마이너스3 대신)

(+3)→더3(즉 플러스3 대신)

정수→더수

대입하다→갈아넣다

암산→속셈

접선→당이선

미지항→모르는 마디

단항식→홀마디식

다항식→여러마디식

○ 기상용어의 예

뢰우→우뢰비

법람기→벌창철

고수위→높은 물높이

○ 경제학용어의 예

수입→들이기

지출→내기

끝으로 사람의 이름과 관련하여 우리 고유어로 된 이름을 살펴보자.

남자이름에는 아침, 한범, 솔이, 보람, 슬기, 세찬, 바위, 금돌, 억세, 노을 등, 여자이름에는 꽃분이, 미나리, 진달래, 은별, 꽃송이, 참매, 첫순,

세 날 등, 우리 고유의 낱말을 많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돌림자를 고려한 한술, 한길, 한범, 한산의 경우도 있다.

6) 사전편찬

이상에서 보았듯이 어휘가 많이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사전편찬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사전편찬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지키고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키며, 한자말과 외래어가 고유어와 같은 의미일 때에는 고유어만 쓰고 사전에서 한자말은 빼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전은 법적, 통제적 기능을 수행해야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철저한 통제적 사전편찬 원칙 아래서 “현대 조선 말사전”(1968)은 약 5만 어휘만 실렸는데 漢字는 한 자도 없고 학술전문용어, 옛말, 사투리, 고유명사, 소위 “퇴폐적 사상표현”은 없앴다. 그리고 그 어휘마다 정치성이 부여되어 김일성의 인용구를 굵은 활자로 장황하게 부치고 별표까지 달아 놓았다.

5. 정치도구로서의 언어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언어정책에 관하여, 문자정책, 표준어 정책, 어휘정화와 사전편찬에 관해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의 일관된 결론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소위 사회주의 사회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는 기치아래 언어를 하나의 정치도구로 이용하려는 언어정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라는 실체를 북한이라는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언어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있는 무기”라 보는데 이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며 파괴적인 성격을 조장하는 잠재적 요인이 된다.

또한 북한의 언어교육을 살펴보면 김일성의 우상화가 얼마나 철저한지 뚜렷이 나타난다. 일례를 들어보면 북한의 잡지나 신문을 보면 모두가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함으로써 시작되고, 무슨 논문이든지, 김일성이 언급한 내용을, 일반적이든 막연한 인용이든, 반드시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도구로서 언어가 완전히 이용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간에 벌어지고 있는 언어격차의 문제는 통일조국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어휘체계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성격형성문제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격차의 문제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III. 북한언어의 현황

1. 개관

언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의 요인이 주어지면 변화한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 그러나, 분단 30년의 세월 속에서 근본적인 음운체계나 文法체계가 변화하기는 힘들다. 다만 어휘체계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고 이는 북한의 소위 언어정책이 대남전략적인 면과 공산주의 혁명과 전설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북간의 언어자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일언어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이마저 유발하고 있다.

이제 북한어의 언어 현상을 공시 언어학적 입장에서, 음성학적—음운론적 특징, 형태론적 특징, 통사론적 특징, 어휘 의미론적인 특징과 문체론적 특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2. 음성학적—음운론적 특징

먼저 현재 북한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음성 및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음소체계상으로는 남북한 언어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우선 자음과 모음의 음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자음 음소 : ㄱ, ㅋ, ㅋ, ㄷ, ㅌ, ㅂ, ㅃ, ㅍ, ㅎ, ㅈ, ㅊ, ㅉ, ㅅ, ㅆ,
ㅇ, ㄴ, ㄹ, ㅁ, ㅎ

모음 음소 : ㅏ, ㅓ, ㅐ, ㅔ, ㅚ, ㅟ, ㅜ, ㅗ, ㅡ, ㅓ

이상과 같이, 자음 음소 19개, 모음 음소 10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음성학적 차원에서 한국의 표준어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난다.

(1) 후설모음 /ㅓ/의 원순성

서울의 표준말에서 음소 /ㅓ/는 주로 후설 평순 반개 모음으로 나타나며 긴 소리로 날 때에는 이보다 음가가 더 높고 중앙화하여 반폐 중설의 위치에 있되, 입술은 여전히 평순으로 난다. 그러나 북한의 /ㅓ/는 걸게 날 때에도 음가가 상승, 중앙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원순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의 /ㅓ/는 [ɔ]와 같은 음가로 실현되어 평순으로 나는 한국 표준말의 /ㅓ/[ʌ/ə:]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기)

	한국	북한
썩다	[ʌ]	[ɔ]
걱정	[ʌ]	[ɔ]
걷다	[ə:]	[ɔ]
젊다	[ə:]	[ɔ]

(2) 전설 모음 /ㅚ/[ɸ]

표준말에서 음소 /ㅚ/는 이중모음 [we]로 나는 일이 많으나 북한의 언어에서는 단순모음 [ɸ]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기)

	한국	북한
되다	[we]	[ɸ]
외국	[we]	[ɸ]
회사	[we]	[ɸ]

(3) 후설 모음 /으/의 원순성

표준말에서 음소 /으/는 후설 평순 모음 [ɯ]같은 소리로 나나 북한의 말에서는 원순을 수반하며 우[u]와같이 발음된다.

보기)

	한국[ɯ]	북한[u]
음악	음악	음악
극적	극적	극적
승산	승산	승산

지금까지 위에서 열거한 북한어의 특징은 원래 평안도 방언의 음성적 특징에서 연유하는 것이나, 현재 북한의 소위 문화어는 주로 평안도 사투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음성적 특징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4) 리듬과 억양의 특성

북한의 언어는 리듬과 억양에서 한국의 표준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먼저 북한어 리듬의 특징은 리듬단위의 길이가 짧아서 하나의 발화 또는 문장이 여러 개의 토막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가령 한국어에서 두세개로 나뉠 글들이 북한에서는 대여섯개의 리듬단위로 나뉘는 따위의 예를 흔히 들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짧게 나타나는 리듬 단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높내림조”의 억양을 수반하기 때문에 특이한 효과를 전달하기 마련이다. 원래 억양이란 목소리의 높낮이가 엎어내는 말의 가락인 바 언어마다 또는 언어집단마다 제각기 특이한 억양형태로서 감정이나 태도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위에서 말한 짧은 리듬단위의 반복과 그와 아울러 나타나는 높내림 억양을 사용하여 응변조와 투쟁, 선동 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선어의 발음은 혁명하는 인민들의 사상과 생활감정을 담아, 혁명적으로 세련되어 있으며 씩씩하고도 기백이 차고 넘치는 발음이며……” 따위의 주장은 북한어의 리듬과 억양이 전달하는 효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

가령 위에 소개한 내용을 남북한에서 흔히 발음되는 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리듬단위의 경계를 나타내고 (=)는 북한에서 쓰는 높내림 억양을, (>)는 한국어에서 보통 쓰는 가온내림조의 억양(북한보다는 목소리의 높이가 낮은)을 나타낸다.

한국어 : 인민들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 // 혁명적으로 `세련되어 있으며 // 씩씩하고 기백이 넘치는 `발음이며…… //

북한어 : // 인민들`의 // 사상과 감정을 담`아, // 혁명적으`로 // 세련되어 있 으`며 // 씩씩하`고 // 기백이 넘치는 발음이`며…… //

그러므로 낮고 자연스레 흐르는 듯한 리듬과 억양을 쓰고 듣는 데에 익숙한 한국인은, 북한의 리듬과 억양이 전달하는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말씨에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북한은 그러한 효과를 “씩씩하고 기백이 있다”고 표현하지마는 우리에게는 혐오의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의 언어차이, 그리고 언어감정의 차이를 잘 반영하는 증거인 것이다.

그 밖에 음운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두에 자음이 제약을 받지 않고 분포된다는 점이다. 즉, 국어에서 ㄹ과 ㄴ이 어떤 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두음법칙)이 무시되고 있다. ㄹ은 어떤 경우에는 어두에 나타나지

않으며 뒤에 [j]음이 바로 뒤에 있는 어두, 즉, ㅑ, ㅓ, ㅕ, ㅛ등과 결합되어 어두에 나타나면 틀락된다.

예) 로동신문(←노동신문)

리△△(李아무개←이△△)

녀자동맹(女子同盟←여자동맹)

량반(兩班←양반)

념원(念願←염원)

그리고, 복모음의 단모음화 현상도 볼 수 있다.

예) 결례→걸례

치례→치례

후설모음화 현상의 예는 ㅟ가 ㅜ로 ㅚ가 ㅗ로 바뀌는 예가 많다.

예) 위에(上)→우에

귀룽나무→구름나무

귀룽자리→구름자리

문어��→문어구

쇠고기→소고기

다음으로는 후설모음이 뒤의 “ㅣ”모음의 영향을 받는 “ㅣ”모음 역행동화 가 있다.

예) 부스러기→부스레기

엉덩이→엉뎅이

무더기→무데기

누더기→누데기

곰팡이→곰팽이

본토박이→본토백이

자세하다→재세하다

아지랑이→아지랭이

또한 원순모음화와 경음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림→구림

속새→쓰새

원수→원쑤

고니→꼬니

복수→복쑤

그그제→그그제

마지막으로 용언활용시 [j]반모음의 개입을 들 수 있다.

예) 되었다→되였다

헤어지다→헤여지다

희었다→희였다

3. 형태론적 특징

형태소의 됨됨이를 살피는 형태론적 측면에서 굴곡법과 조어법의 범위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굴곡법

문법범주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문법기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문법범주에서는 “조사(助詞)”를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지 않고 다만 명사의 곡용접사(inflectional affix)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에 예를 들어 살펴본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마련시키는…”의 文章에서 一은, 一과, 一을 등을 곡용접사로서 명사의 부속으로 본다. 이는 원래 북한의 문법기술체계는 근본적으로 김두봉의 「조선말본」에 근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조어법

우선 새로운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를 만들어 기존의 조어방식에 유추시켜 형태소를 구성한다.

보기) 一어 나다 : 부러워나다, 좋아나다, 더워나다, 당황해나다.

一어 나서다 : 떨쳐나서다, 펼기하여나서다, 지지하여나서다.

또 교도적인 신조어가 상당히 많다.

예) 혁명적, 반제반미 반일사회주의 혁명투위

그리고 문법적 파생접사(deviational affix)를 그 사용범위를 확대시켜 조어법에 사용하고 있다. 피동접사 一히一를 확대시킨 경우는 “생각히다, 표히

다” 등과 “—지다, —맞다, —롭다, —차다”와 결합한 경우에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一적(的), 一성(性), 一운동(運動)을 명사 뒤에 써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냈는데, “당적(黨的), 당성(黨性), 변론퇴치운동(運動)”은 그러한 예이며 이처럼 조어법에 새로운 원리를 써서 그 사용범위를 넓히는 반면, 기존 文法체계 내에서 다양한 신조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 이것은 한글전용과 함께 실시된 “말다듬기 운동”的 영향이다.

4. 통사론적 특징

커다란 통사적인 특징은 없으나 북한의 사회현상에 기인하는 존대법체계에 변화가 있으며, 명사나 동명사의 절대격형에 속격형이 연결되는 형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최후의 목적을 이루하는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달성”이란 구조를 “목적을 이루하…”로 통사형식을 고쳐가고 있다. 문장구조의 전체적인 면에서는 주어가 중심이고 수식어와 서술어는 주어의 위상에 따라 달라짐이 한 특징이다.

다음에 존대법체계에 대해 살펴보자. 주체존대 —시—는 아주 자주 쓰이며 상대존대는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대존대법의 체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말을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이고, 잘 아는 사이면 <낮춤말>이 사용된다. 여기에 나타나는 어미는 —는다, —주나, —누나, —냐, —니, —자, —라, —럼, —마 등이다. <낮춤말>의 어미들은 대등한 사람 사이에 쓰이면 허물없고 친근한 느낌을 주며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②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경우의 <같음말>은 다음과 같다.

공식적이고 존중하는 뜻빛깔을 가지는 어미 : —오, —소 등.

허물없이 친근한 느낌을 주는 어미 : —아, —지, —네, —군, —나, —는 가, —라구, —게, —세 등.

③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위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높임법>이 쓰인다.

남자에게 보다 많이 쓰이고 정중한 맛을 주는 어미 : —님니다, 님니까, —님시오.

좀더 여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부드럽게 들리며 친근한 느낌을 주는 어미 : —아요, —예요, —세요, —군요, —지요, —ㄴ가요, —나요, —지요, —라요 등. 따라서 상대존대법의 전통적인 계층인 <존대>, <하오>, <하게>,

〈해라〉, 〈반말〉의 다섯 계층은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존대법에 있어서 주어와 술어, 규정하는 말과 규정받는 말, 보어와 술어, 부름말과 술어, 대답어와 술어 간의 호응이 잘 일어나고 있다.

한편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복수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했고…

말들을 다듬는데 있어서 연어들의 뜻과 결합관계를 고려 할…

통사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보일 뿐 근본적인 어떤 차이는 없다.

5. 어휘와 의미의 특징

우선 여기에서는 공시론적 어휘 의미론을 살펴보면서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어휘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여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보통, 개념(Sense)과 명칭(Name)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겨 의미변화가 나타난다. 개념(Sense) 사이의 관련성, 명칭(Name) 사이의 관련성, 또 이름 상호간의 관련성, 명칭과 개념의 동기적 관련성으로 일어나는 의미변화가 있다.

(1) 명칭은 같고 개념이 다른 어휘

“아가씨”란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고 봉건사상을 나타내는 나쁜 말뜻으로 쓰이고, “빨지산”은 원래 게릴라 단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혁명적 영웅을 말하며, “아버지”란 친부모 대신에 김일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어휘가 되었고, “가족주의”란 말도 가족제도로서의 원래 개념 대신, 몇몇 사람이 정설관계를 맺고 조직에 앞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일종의 종파주의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2) 명칭은 다르고 개념은 같은 말(이하 예들에서 원편이 본디 말이고 다른편이 지금의 북한말임)

예) 깨끗하다→끌끌하다

세차게 때리다→답세기다

무질서하다→무연하다

무척→무등

관상대→기상수문국

귀순자→의거자

양해→료해
 양로원→양생원
 상호→호상
 월동준비→과동준비
 수업시간→상학시간
 상이군인→영예군인
 전시물→직과물
 조직하다→무으다
 폭로하다→발가지다
 수행→성수
 뼜→뽕
 움막→풍막
 솔선수범→이신작치
 산책길→유보도
 대중가요→군중가요
 화장실→위생실
 군사계급→군사칭호
 고기잡이→추어전
 터널→굴간
 채소→남새

(3) 개념이 새로 부여된 말들의 예

“예술”이란 말은 본래의 의미 외에 “기술과 수련”이란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예) 군사예술을 습득하자.

“궁전”은 “사회적 사명을 떤 출렁한 건축물”이란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예) 소년궁전, 文化궁전, 로동궁전

“가장 중요한”의 뜻으로 “왕”이란 말이 쓰인다.

예) 철과 기계는 공업의 王이다.

(4) 명칭이 새로 부여된 말들의 예

“인민배우” : 배우 급수 중에서 가장 높은 급수

“노루마” ; 작업기준량

“공민증”; 만 18세 이상은 늘 휴대해야 하는 신분증

“밥공장”; 주부들이 식권을 맡겨두고 끼니때 밥을 사가는 곳

이외에도 “붉은 넥타이계급”, “주체사상” “붉은 봄”등의 말이 있다.

(5) 명칭을 외래어, 특히 소련어에서 들여다가 본래 말을 대치시킨 예들도 있다.

예) 소년단→뻬오네르

개→싸바카

주체→쩨마

공동집단→꼼무니

집중사업→깜빠니아

그룹→그루빠

종합공장→꼼비나트

(6) 명칭을 방언에서 소재를 찾아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예) 못쓰게 망가뜨리다→마스다

옥수수→강냉이

거위→개사니

상추→부루

수레→달구지

이상이 의미변화에 의한 기술이었는데 북한의 어휘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다듬기 운동”에 의해서 쉬운 말과 고유어로 다듬어진 것이 아주 많다.

예) 방출하다→내보내다

인력→끌힘

멸균→균강그리 죽이기

다다미→누비듯자리

치차→이바퀴

역우→부림소

추수→가을갈이

파마→볶음머리

폐활량→폐숨량

관절→뼈마디

살균→균죽이기

또한 어느 사회에서도 그렇듯이 북한에서도 은어가 발달되어 있다. 은어는 그 사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언어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 북한에서 쓰이는 “49호”가 있는데 이 말은 출신성분이 나쁘다고 해서 타지방으로 이주된 자를 가리키는데 이 근거는 북한내각결정 49호에서 나온 것이다. “11호”는 그 사회의 고급간부를 지칭한다.

○ 「가락국수」란 은어는 “칼·마르크스주의”를 가르키는 것이며, 「뼈다구동무」는 “소년단”을 가르키는데, 소련어로 소년단을 빠오네르라고 하며, 빠오네르동무를 뼈다구동무라고 한다. 또한 「크라이막쓰」는 “칼·마르크스”를 가리키는 은어이다.

○ 「고급과자」…누릉지

○ 「결본상품」…이른바 영예칭호를 받은 노력 혁신자.

○ 「까마귀 울어」…인민재판이나 군중재판이 있는 날.

○ 「벌잠」…농촌에서의 강제영화관람을 빗대서 쓰는 말.

○ 「돈수대근탕」…고기는 한 점 없이 돼지국물에 무우를 띄운 국을 빙정 대는 대학기숙사의 은어

○ 「콩사탕」…공산당

○ 「하모니카」…아파트

어휘체계의 특징에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어의 독창적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혁명적 어휘로서 사상을 고취하고 유물사관에 입각한 민족문화 개조발전의 무기로서 매개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6. 문체론적 특징

북한언어에서 문체론적 특징을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고 말과 글이 전투성, 호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들 자신은 말하고 있으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 보다는 오히려 전투성과 호소성만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면 다음에 몇 가지 문체론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짧은 문장을 주로 써서 전투적 성격이 뚜렷해진 문장을 쓰고 있다. 여기에 억양의 문제가 작용해서 더욱 전투적 성격을 뚜렷이 해준다.

예) 전진! 돌격!

(2) 명령형, 선동형, 감탄형이 많이 쓰이고 있다.

(3) 반복을 통한 강조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논리전개방법은 북한에서 는 천편일률적이다.

(4) 북한 문헌의 제목은 대개가 서술적인 문장체로 이루어져 있어 장황하고 선동적인 느낌을 준다.

(5) 적설적이고 육설과 격렬한 성토적 표현, 과장된 극존대(수령에 대한), 수식어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는 신문지상에 버젓이 쓰이고 있다.

예) 둘탕을 쳐 죽이자.

미제의 각을 뜨자.

(6) 접속어미 —고, —며로 연결되는 병렬복합문을 쓰는 문법적 수단의 이용으로 전투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 —며로 이어지는 문장은 대칭되는 말이나 구절을 복합하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준다.

이처럼 북한의 언어에서 나타내는 문체론적 특징은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점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로 생각해 볼 때 북한주민들의 사고 및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IV. 한국의 언어정책과 현황

북한의 체계적이고도 용의주도한 언어정책에 비해서 남한의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보급면에서 보면 남한은 어떤 규범적인 언어를 국어교육에만 국한하여 학교에서 국어교육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언어학적인 학술이론이 비교적 분분한 편이어서 어떤 한 가지의 이론만이 정책적으로 교육과 보급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남한의 언어정책은 상당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이 표현은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글전용문제, 외래어 정리를 비롯한 국어순화정책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확고한 규범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

언어정책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국가가 최대한으로 간섭을 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둘째는 언어의 자연추세에 맡겨 두고 국가는 무관심하는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경우는 전형적으로 전자의 경우에 속하고, 남한은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후자에 속하는 유형이라고 파악된다. 즉, 남한의 언어정책은 미온적이어서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문교부의 주관으로 표준말,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표기법 등, 어문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을 서두르고 있음은 언어생활에 질서와 통일을 부여하려는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로 풀이되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의 현황은 어떠한지 간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한국에서는 8·15광복 이후 이렇다 할 뚜렷한 언어 정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언어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혼란된 상태에 있다고 본다.

현재 한국어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글자 생활의 혼란, 무질서한 외래어의 수용으로 인한 어휘체계의 문란, 외래어 표기상의 혼란, 어법의 혼란, 표준말의 위치 격하와 지역 사투리의 난립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글자 생활의 혼란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글 전용이냐, 한자 혼용이냐?”의 해묵은 문체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너무도 잘 알려진 일이다.

외래어의 무질제한 수용으로 인한 어휘정화문제도 8·15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내용이며 이와 아울러 일단 들어온 외래어의 표기 방법도 아직 통일이 없이 여러가지 안이 난립하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존대법의 문란, 시체 및 문장 구성상의 과오 등 어법의 혼란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지역 방언의 진출 난립과 그 여파로 빛어지는 표준말, 표준발음의 퇴조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 국민종화를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이 지역 방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

므로,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표준말과 표준발음을 교육하고 보급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표준말의 권위가 많이 약화되어 있고 표준말 교육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역 감정의 해소와 직결되는 표준말의 보급은 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 방언의 난립과 표준말 교육의 부재로 나타난 표준발음의 혼란을 몇 가지 들어본다.

1) 모음의 장단 혼동

우리 말에서 모음의 장단은 의미의 분화에 쓰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장단을 혼동하면 뜻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긴 모음을 짧게 냄으로써 장단의 구별이 모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뜻의 혼동을 빚는 일이 아주 많다.

보기) 긴 모음의 낱말 짧은 모음의 낱말

말(언어)	말(동물)
발(을 치다)	발(바닥)
잘(다)	살(결)
밤(송이)	밤(낮)
감사(하다)	감사(원)
과장(하다)	과장(님)
화장(터)	화장(하다)

이와 같이 장단의 혼동으로 뜻이 구별이 안되는 말은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를 구별해서 발음하는 경향이 점점 약화되므로, 결국 언어의 혼란은 심화하는 것이다.

2) 모음 /애/와 /에/의 혼동

우리 말의 모음 /애/와 /에/는 아주 다른 소리여서 이를 구별해서 내지 않으면 뜻에 혼동이 일어나기 마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두 모음의 구별도 잘 안되는 실정이다.

보기)	/개/ : /개/
	/네개/ : /내개/
	/배다/ : /배다/

3) 긴 /어:/와 짧은 /어/

우리 나라 표준말에서 /어/ 음소는 장단에 따라 음가가 많이 달라지나 요즘에 와서는 이러한 음가의 구별이 없어지는 경향이 짙다.

보기)	긴 /어:/	짧은 /어/
	벌(이 쏘다)	벌(받다)
	병(원)	병(마개)
	없다	업다(아이를)
	적다	적다(쓰다)

긴 /어:/는 음가가 중설모음 [ə]에 가깝고 짧은 /어/는 후설모음 [ʌ]에 가깝다.

4) /어/와 /으/의 혼동

표준말에서는 원래 /어/와 /으/의 구별이 뚜렷하다. 즉 /어/는 음성학적으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이고 /으/는 높은 모음이며 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날말의 뜻에 혼동이 오기 마련이다. 이 역시 오늘날 혼동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경상도 출신과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의 발음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류이다.

보기)	표준	비표준
정정	/정정/	/증정/
성공	/성공/	/승공/
적시	/적시/	/즉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 “정정” 같은 날말은 /어/의 소리값을 /으/와 혼동할 경우 “승공”, “증정” 같은 말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상 몇 가지 현상만 기술하였거니와, 여기서도 표준말과 표준발음의 혼란상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현상대로 방치해 둘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의 언어에 질서와 통일을 부여하고

표준말의 보급을 통한 의사소통의 균대화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당면 목표와 아울러 북한과의 언어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할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겠다.

V. 남북한의 언어이질화의 원인

지금까지 북한의 언어 정책과 더불어 그에 따른 북한언어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금 남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특히 어휘의미면에서 엄청날 정도로 큰 차이가 남북한 언어에서 나타났고 언어정책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유발되었음을 보았다. 그러면, 남북한이 분단된지 불과 3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러한 큰 차이점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남북한의 언어이질화를 검토함에 있어서 첫째, 일반 언어이론면에서 우선 검토해 보기로 하고 둘째로는 남북한의 언어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럼 먼저 일반 언어이론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

1. 일반 언어이론면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언어가 차이를 보이고 나아가 거의 다른 별개의 언어로 분화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요인은 사회적·문화적인 원인에서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이유가 있겠고 둘째로는 지리적 원인에서 서로간에 교류가 단절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사회적·문화적인 원인에 의해서 동일언어가 분화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회적 방언이 생겨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영국사회에서 계층간 언어차가 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문화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지리적 원인에서 언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자. 역사적으로 동일한 공통조어에서 유래한 두 개의 개별언어가 분화되는 것은 지리적인 단절의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는 인도 유럽어족의 경우, 원래 한 공통조어였지만 그것이 여러 지리적인 상황에서 서로 교류가 없어지자 각기 나름대로 언어가 발전해 나간 결과 이제는 전부 각기 다른 하나의 개별언어로

발전한 것이다.

근래의 예로 보면 불란서의 경우에 있어서 알프스 부근의 지방어에는 산악지방어가 많은 고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경우엔 산이라는 지리적 장애가 다른 언어집단간의 교류를 단절시킨 예이며 같은 어군에 속하면서도 아이슬랜드어가 영어와 심하게 분화된 것은 바다라는 또 다른 장애가 교류를 단절시킨 예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도 일반 언어이론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위적인 지리적, 사회적인 단절을 30여년간 강요받았다는 사실은 언어의 이질화를 유발시킨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인위적인 지리적 장벽으로 말미암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언어가 발전되어 나간 결과 지금의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휘면에서 상당한 이질화가 이루어진 것의 첫째 이유는 충분히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인 단절도 이질화에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란 정치적, 사회적 이질화는 언어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갖게 되었다. 각기 그 사회에 적응될 용어가 나타나는 것이 우선 큰 영향을 주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사회체제 속에서 사고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고 다시 그 언어가 사고에 자극하여 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과격한 행동과 사고에서 거칠고 극단적인 용어가 나타났고, 그러한 용어들은 다시 그들의 극단적이고 과격한 사고를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단절과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위적인 지리적 단절이 결국은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규정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 점에서 볼 때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위에서 나타난 지리적·사회적 단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부터 어서 빨리 남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동일민족이 동일언어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겠다.

2. 언어정책면에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질화를 불러 일으킨 또 다른 요인으로서 각기 다른 남북한의 언어정책을 비교해 보자. 이미 앞에서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남한

과 북한의 언어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도적이고 정치적이며 규범을 강요하는 북한의 언어정책과, 자율적이고 언어의 자연추세에 맡기면서 규범을 권장하는 남한의 언어 정책은 언어의 이질화를 유발시키는 당연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는 남한의 언어와는 다른 궤도에서 급속히 변화해 갔기에 특히 이론 시기에 있어서 한글전용과 거기에 따르는 “말다듬기 운동”의 여파로 상당한 언어의 변화(어휘 의미면에서)가 초래되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소위 반미·반일·반제국주의의 주장에 따라 영어나 일본어에서 유래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없애고 순 한글로만 바꾸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생겨난 단어에서의 차이들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점에서 볼 때 각기 다른 언어 정책의 차이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의 언어이질화를 더 이상 파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무모하고 정치지향적인 언어정책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욱 체계적이며 발전적인 언어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만이 남북한의 언어이질화의 폭을 좁히고 더 이상의 이질화를 방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통적 동일민족의 동일언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유한 한국어는 내적인 발전을 하면서 항구적으로는 “언어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VII. 맷 는 말

지금까지 여기서는 주로 북한의 언어정책 및 그에서 비롯되는 북한의 언어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이어서 우리의 언어정책과 언어현황을 대비시켜 보았다. 북한의 언어정책이 체계적이고 통제적이라면 우리의 정책은 자율과 방임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남북한의 언어현실이 잘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 필연적으로 전개될 남북의 언어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정책의 연구와 수립이 시급함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논문의 큰 제목이 나타내듯이 소련, 중국, 동독 등의 공산권의 언어정책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겠다. 북한을 포함한 이를 공산권 국가의 언어정책 연구는 장기적인 한국의 언어정책 수립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국민방침 연구소(편), 『남한용어 대백과』, 1976.

- 국어조사 연구 위원회(편), 『표준말 자료』, 1970.
- 국토 통일원(편), 『남북한 비교연구 논총』, 1976.
- 극동문제 연구소(편), 『북한 말다듬기 자료집』, 1973.
- 극동문제 연구소(편), 『북한 언어정책 자료집』, 1973.
- 극동문제 연구소(편), 『북한 민속학 자료집』, 1974.
- 김 방한, 『언어학 논고』, 서울대 출판부, 1970.
- 남 광우, 『현대 국어 국자의 제문제』, 일조각, 1971.
- 이 응백, “표준어와 정서법에 대하여”, 『새교육』, 1967-1.
- 이 해영, 북한 언어정책의 특징과 실태, 서울대 행정대학원, 1974.
- 이 현복,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 『문리대학보』, 서울대, 1973.
- 이 현복, “현대 서울말의 모음음가”, 『어학연구』, 7권 1호, 1971.
- 이 현복,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연구”, 『언어학』, 제 2호, 한국언어학회, 1977.
- 이 현복, “표준말의 재사정에 따르는 문젯점”, 『한글』, 제 163호, 한글학회, 1979.
- 장 태진, “국가어의 개념”,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1971.
- 조선어학회(편),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46.
- 최 학근, 『국어 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 1968.
- 최 현배, 『우리 말본』(네번째교침), 정음사, 1971.
- 한글학회(편), 『한글 맞춤법 통일안』, (346판), 1975.
- 허 웅, 『언어학 개론』, 정음사, 1963.
- 허 웅, 『우리 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과학사, 1974.
- 홍 연숙, “남북한 언어개념의 이질화 연구”, 국토 통일원 조사연구실, 1977.
- 남북회담 제 1차 서울회담 연설문, (녹음 테이프), 1972.
- Bright, W. and A.K. Ramanujan, “Sociolinguistic Variation and Language Change,” in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ics, Cambridge, 1964.
- Encyclopaedia Britannica*, 1970.
- Gray, G.W. and C.M. Wise, *The Bases of Speech*, 1959.
- Haugen, 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nguages,” in *Linguistics* edited by A.A. Hill, 1969.
- Haugen, E., “Dialect, Language and N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 68, 1966.
- Koffler, B. and Martin Light, *The World of Words*, 1967.
- Labov, W., “The Study of Language in Its Social Context,” *Studium Generale*, Vol. 23, 1970.
- Ladefoged,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1975.
- Lehman, *Historical Linguistics*, New York, 1962.
- McIntosh, A., “Language and Style”, *Durham University Journal*, vol. 55, no. 3, 1963.
- Le Poge, R.B., *The National Language Question*, London, 1969.
- Ray, P.S., *Language Standardization*, Mouton, 1963.